| 현불 논단 |

더 많은 세계유산 등재 바라며



문명대
동국대 명예교수,
한국미술사연구소장

지난 6월 30일 한국 산사 7곳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돼
1천년 이어진 사찰 역사성 인정

이코모스, 4곳 등재 권고했지만
정부 · 종단 노력, 등재 성공 '찬사'

불교 유산 세계에 인정받기 위한
종단 내 세계유산위원회 구성해야
세계유산 등재 방안 연구 필요

오랫동안 고대해마지않던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이 드디어 6월 30일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유네스코가 정한 엄격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 기준(OUV, Outstanding Universal Value)'에 맞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에 등재된 7개 산사인 양산 통도사 · 영주 부석사 · 안동 봉정사 · 보은 법주사 · 공주 마곡사 · 순천 선암사 · 해남 대흥사 등이 모두 이 기준에 맞아 떨어졌을까?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우여곡절 끝에 7개 산사 모두 최종적으로 합격 판정을 내리게 되었다.

탁월한 보편적 가치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역사성이다. 유네스코는 우리 7개 산사가 모두 천년의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는 처음 봉정사, 마곡사, 선암사는 역사적 중요성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제외하도록 세계유산위원회에 권고했지만 한국 정부와 조계종단이 이를 충분히 해명하여 모두 등재에 성공했다고 한다. 발 빠른 신속 대응에 찬사를 보내야 할 것이다.

둘째, 지속성의 문제다. 7개 산사 모두 천년고찰일 뿐만 아니라 법의 등불이 꺼진 적 없는 사찰들로서 1000년 전 창건 때부터 계속 전승되어온 고찰인 것은 사찰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셋째, 이러한 역사성과 지속성을 알려주는 국보, 보물, 지방문화재들이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7개 산사에 풍부하게 보존되고 있는 것이다.

넷째, 이들 산사에는 인도나 중국과는 달리 승려들이 수행에 몰두하고 신도들도 신앙 활동에 전념하는 등 신행활동을 창건 때부터 지금까지 생활화하고 있는 것은 놀라운 사실로 받아들여진다. 산사라는 한 공간에서 신행과 생활이 모두 이루어지는 전통이 계승되고 있는 곳은 한국밖에 없다고 평가되고 있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 무슨 가치가 있고 어떤 이득이 있을까. 세계유산은 한마디로 말해서 무한한 가치와 헤아릴 수 없는 이득이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것은 모든 세계유산 지정물들이 정확히 증명해 주고 있다. 바로 세계인들의 조건 없는 신뢰와 아낌없는 사랑으로 보답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것에는 대가가 따르는 법.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 등재가 계속 되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것은 바로 세계문화유산위원회의 필수 권고사항이기 때문이다. 주문사항은 △비지정건물 관리방안 △종합정비계획 △관광객 대응방안 △사전협의 등이다.

이를 차질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세계문화유산에서 해지될 수 있기 때문에 몇 가지 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첫째, 총무원 문화부 성보문화재위원회 안에 분과위원회를 두고 실무자와 함께 실제적인 점검관리와 대책방안을 계속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른 불교세계문화유산도 포함하는 총무원 세계유산위원회는 보존 위원 5명 내외, 전문위원 5명 내외, 실무자 5명 내외가 상설로 활동하는 체제가 되어야 한다.

둘째, 해당 위원회는 보존, 관리에만 그치지 않고 불교세계문화유산을 더 많이 등재하도록 하는 발전방안을 기획하고 연구하고 실천하도록 해야 한다.

지리산과 화엄사, 설악산과 신흥사 같은 단위 사찰, 선종사찰이나 교종사찰 등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이와 함께 화엄사의 화엄석경이나 경주 창림사 법화경 석경 같은 석경류, 수많은 불교 목판이나 전적 등도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할 수 있도록 상설위원회에서 체계적인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社說

세계명상마을, 禪 대중화 시발점

7월 12일 한국불교의 대표 선원인 문경 봉암사 앞에 세계명상마을이 첫 삽을 뜬다. 21세기 인류 문명의 대안으로 명상과 선수행이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세계적인 명상과 힐링, 그리고 불교 전통수행을 알릴 공간이 들어서는 것이다.

세계명상마을은 한번에 300명이 숙식을 할 수 있는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미국 뉴욕의 원 다르마센터를 설계한 자연주의 건축가 토마스한라한 교수와 현대종합설계팀이 맡아 친환경적으로 건립할 계획이다.

한국불교는 2021년 조사선 전래 1200년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선 대중화는 요원한 실정이다. 승가에서도 위빠사나를 비롯해 서구의 현대화된 수행법을 익히는 추세다. 조계종의 대표수행법인 간화선의 대중화를 부르짖은지 20년이 넘었지만 정작 간화선보다 다른 수행법이 각광을 받고 있다. 수좌 스님들은 본인의 수행과는 별개로 세상과 동떨어져 있다는 오해도 많다.

이런 가운데 세계명상마을의 건립은 반갑기만 하다. 불교계는 이번 세계명상마을 건립을 기계로 물적 인프라 확충과 함께 현대화된 선수행을 개발하고, 이를 일반대중에 쉽게 전할 수 있는 지도자 양성에 나서야 한다. 시대의 흐름인 명상열풍과 접목해 불자가 아니더라도 선문화를 접하고, 부처님 가르침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대승불교의 핵심인 자리이타는 본인의 수행 외에도 대중들을 함께 이롭게 하고 바른 길로 이끔을 의미한다. 세계명상마을이란 하드웨어의 완성을 계기로, 선 수행의 현대화와 대중화를 이루기 위한 소프트웨어의 발전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승가결사체 활발한 활동 기대한다

조계종 교육원이 처음으로 시행하는 '승가결사체 전법교화활동 연수인증 및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단체에 대한 인증서가 7월 4일 수여됐다. 본격적인 활동을 알린 것이다.

'승가결사체 전법교화활동 연수인증 및 지원사업'은 사회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전법 · 호스피스 · 해외구호 · 무료급식 · 환경사업 등을 진행하는 스님들의 모임을 연수인증 단체로 선정 ·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심사를 거쳐 20개 승가결사체가 선정됐으며, 면면을 살펴보면 눈길이 가는 단체들이 많다. 영국 런던에서 한인 교포들을 대상으로 포교활동을 하고 있는 '로터스 마인드(Lotusmind)'를 비롯해 EM을 통한 환경운동을 펼치는 'EM 지구사랑 작은실천', 국제구호활동과 노숙자들에게 먹거리와 생필품을 제공하고 있는 '다나(다함께 나누는 세상)' 등 매우 이색적이다.

조계종 교육원이 승가결사체 구성을 독려하고 연수 인증에 지원금까지 수여하는 것은 모두 스님들의 전법활동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는 '전법포교역량을 향상시키는 승가교육'이라는 조계종 교육원의 캐치프라이즈에 부합되는 것이기도 하다.

현재 한국사회는 비종교인이 종교인보다 많은 '탈종교사회'에 접어들었다. 또한 가족 간 종교 일치율이 늘어나며 개종률은 낮아지고 있다. 이는 어지간한 노력으로는 새로운 신자들의 유입을 기대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선한 마인드를 가진 스님들이 펼치는 승가결사체의 전법활동이 기대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들의 활동이 전법 · 포교에 새로운 장을 열어가길 기대한다.



기자칼럼
신성민 취재부 기자

고개 든 훼불,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

한동안 잠잠했던 훼불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 6월 중에만 2건의 훼불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6월 1~2일 한국 선무도 본산인 경주 골굴사에 이교도로 추정되는 용의자들이 잠입해 복전함에 십자가를 그리고 사찰 표지석에는 '죽을 사(死)'를 낙서했다.

6월 18일에는 법보종찰 해인사에 이교도 남성 2명과 여성 2명이 난입해 "주 예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당시 법회 봉행 중이었던 해인사는 이교도의 행패로 법회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없었다.

사실 이교도가 행하는 훼불행위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잊을만 하면 다시 나타난다. 이유는 명확하다. 다른 사람들의 종교와 사상을 인정하지 않고 혐오하는 범죄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조항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실제 이교도에 인한 훼불행위에 대해 대부분 훈방이나 손괴 처벌 정도만 받고 있다. 불상 등을 파괴하는 행위를 단순 난동 행위와 손괴로만 처리하고 있는 것이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는 지난 6월 29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각 종교계와 정부는 종교간의 화합과 평화를 깨뜨리고 전통문화와 문화재를 훼손하는 행위를 근절하는 실효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각 종교계는 이웃종교와 문화적 고유함을 훼손하는 언행을 근절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실천해야 한다. 정부는 배타적 종교관으로 인한 차별 · 혐오 없는 사회와 전통 문화 · 문화재 보호를 위한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고도 했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실효적 대책은 불교계가 오래 전부터 제정을 촉구해 온 '차별금지법'이다.

차별금지법은 종교 · 성별 · 장애유무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다.

현재 이교도들의 행위는 소위 증오범죄에 해당된다. 단순히 광신도들의 행태라고 보기에는 이제 그 정도를 지나치고 있다.

미국은 1969년 연방증오범죄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이 증오방지법은 인종, 피부색, 종교, 국적, 동성애를 이유로 차별이나 학대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하서는 벌금형 및 1년 이내 구금, 총기 등 무기사용자에 대해서는 최대 10년 징역, 납치 · 성폭행 · 살인범에 대해서는 무기형 또는 사형 등 강력히 처벌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1990년 종교화합유지법을 제정해 다른 종교단체에 대한 적대감, 증오, 악의, 또는 적개심을 일으키는 자와 이를 종교단체나 기관을 선동하거나 부추기거나 장려하는 자에 대해 징역과 1만 달러 이상의 벌금형을 내리고 있다.

미국처럼 증오범죄방지법이 제정되는 것이 제일 좋지만, 한국사회에서는 요원한 일이다. 차별과 혐오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이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일부 개신교인'들과 이들의 표를 의식하는 국회의원들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의 갈등은 세대갈등, 지역갈등, 이념갈등, 정치적 · 경제적 갈등을 넘어서 종교적 갈등이나 민족적 갈등 그리고 문화적 갈등 등 다양하게 변하고 있다.

갈등으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일이다. 피해자는 있는 데 가해자는 마음 편한 이 같은 행태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박종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부 산 지 사 : (051)405-9402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악령, 귀신 잡는 스님이 있어 화제

憑依(빙의)와 귀신병(鬼神病)

은 자신의 생각 의지 마음과 상관없이 악귀에 조종당하여 자신과 가정은 예기치 못한 행동으로 끔직한 사건으로 비화되거나 또는 집안이 망신과 수치로 황폐화되고 사회적으로는 각종 사건사고에 연관되어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본인 또는 가족 중에 다음과 같은 현상들이 있으면 빙의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으며 청정 수월도량 자비사와 인연이 되어 가정에 사랑과 건강함과 평화가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빙의와 귀신병의 주요 증상

* 혼자 중얼거리고 방에서 누구하고 대화 하듯이 씨부렁거린다. * 환청이 들리고 신경이 예민하여 고함을 지르고 발작을 일으킨다. * 공황장애와 과대망상 우울증으로 자살 하고픈 마음이 자주 생긴다. *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어깨가 한 짐이 되어 무겁고 양쪽 팔과 다리와 허리가 찢어질 듯이 아프다. *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하는데 항상 머리가 무겁고 아픈 두통이 계속 되고 몸 전체가 몸살 난 것처럼 고통스럽다. * 평상시는 순하고 순한데 술만 마시면 난폭해지고 폭력적인 사람으로 변화되고 이상한 사람으로 바뀐다. * 무엇에 홀린 듯이 술을 연속하여 밤새도록 마시거나 또는 줄 담배를 피운다. * 몸속에 귀신이 드나드는 느낌이 들고 이유 없이 몸이 아프거나 잘 나가든 집안이 갑자기 몰락한다. * 술은 마시면 말과 방언이 튀어 나오고 본인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평상시와 다른 폭력적인 사람으로 변한다. * 어느 날 갑자기 과도한 비만이 되어 이상한 몸으로 변했다. * 돌발적인 행동과 발작을 일으키고 자꾸 누군가 자신을 해치려고 한다거나 귀에다 대고 속삭이는 경우. * 신 내림굿을 하였는데 도리어 더 이상한 사람으로 변했다. * 신의 제자가 되기 위해 신 내림굿을 하였는데 신 제자의 길을 포기하고 원상복귀를 원하고 있는 사람. * 돌아가신 조상이 좋지 않은 모습으로 꿈속에 자주 나타난다. * 계속하여 악몽을 꾸거나 헛것이 보이고 귀신이 보인다. * 귀신하고 사랑을 한다. * 입산수도 하다 오히려 잡귀에 씌어 고통당하고 있다. * 신병과 귀신병으로 고생하고 있다. * 집안에 연속하여 대형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가족 구성원이 아무 이유 없이 줄초상을 당한다. * 종교계통의 일을 하는데 빙의 되어 있다. (예를 들면 자신이 부처이고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 * 결혼 적령기가 훨씬 지났는데 결혼을 못하고 있다. * 큰 충격을 받아서 정신이 나간 것처럼 행동한다. * 가족 중에 정상적이지 못하고 누가 봐도 이상한 행동을 한다. * 불교 기독교 등 종교와 상관없으며 귀신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반드시 해결되며 국내와 해외에 거주하여도 본인이 직접 오지 않고 가족이 와도 무방합니다. **위와 같은 증상이 있으면 몸과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청정수월도량 자비사와 인연이 되어 잡귀 마장 사탄 중엄신 조상신등 악마 잡귀의 무거운 짐을 벗어 가정의 건강함과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새롭게 태어나길 바랍니다.**

어떠한 악령 귀신도 단번에 제도하여
고통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며
심신의 안녕과 평화를 찾게 합니다.

다른데서 몇 번이나 했는데
안 되더라 하는 고정관념을 버리시고
심대한 부처님의 가피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귀 대한불교 자비사 상담전화 010-8600-7409 (서울 강남구 대치동 2호선 선릉역 지하철 1번 출구)